

## 답보상태 빠진 '녹색 출판'

대안제시는 여전히 미흡한 형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주의는 21세기 출판계에도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국내 출판계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다.

출판인과 독자들이 환경관련 도서를 외면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제지·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환경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환경지속지수'가 발표됐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22개국 가운데 95위를 차지했다. OECD가입국이란 명패가 무색할 정도로 한심한 수치였다. 새해 환경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결과를 보고 발끈했다는 후문도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 환경도서에 대한 독자의 관심 미미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출판계도 아직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인문·사회과학 출판사에서 환경관련 도서를 기획, 출간하고 있지만 물 위에 눈 내린 격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는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환경도서 전문 출판사로 '뜨님'과 '도요새'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초 리우국제환경회의가 개최됐을 무렵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때만큼 열기가 뜨겁지 못하다. 환경도서 판매량이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주제가 이미 식상해졌고 점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출판계에서도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을 뿐 대안제시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뜨님 송대원 대표의 진단이다. 뜨님은 지금까지 35종에 이르는 <환경신서> 시리즈를 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의 단행본 출판사인 도요새는 <도요새문고> 시리즈와 <지구환경보고서> 등을 펴낸 신생 출판사다. 최승호 주간은 환경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50년이면 방글라데시의 국토 50%가 사라진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은 폐허화된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다. 출판계는 환경문제의 절박성을 개인의 의식 속으로 침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출판은 대표적인 공해 산업 가운데 하나다. 나무를 잘라 종이를 만들고 인쇄과정에서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이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펄프 생산량은 세계 28위, 지류 소비량은 세계 25위다. 지난해 펄프 생산량과 인쇄용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약 102%, 110% 가량 증가했다.

### 제지·인쇄공정에서 수질오염 발생

종이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폐수다. 펄프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슬러지가 대표적이다. 또한 폐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기 위해 화공약품을 사용할 때도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환술제지의 경우 각 공장마다 환경관리를 상주시키면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수질오염 문제를 감독하고 있다.

인쇄공정에서도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인쇄판과 필름을 제작할 때 화공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수질오염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평화당의 최영일 차장은

"현재로서는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산업계의 법준수 등이 서로 맞물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출판계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한때 재생지 사용률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것조차 미미한 상태다. 국내에서 폐지 재활용률은 1999년도에 종이 소비량의 59%에 이르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다. 하지만 출판계에서 재생지 사용비율은 낮은 편이다. 제작유통과정에서 훼손율이 높고 디자인의 측면에서 사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미래 출판의 대안으로 주문인쇄와 전자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은국 교수(서일대 정보출판과)는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시장조사와 기획에 기초한 출판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독자를 늘리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문자에 의한 정신의 오염이다. 최승호 주간은 "출판은 나무에 대한 갈등을 안고 출발한다. 우리가 나무를 베고 종이를 쓰는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같은 글을 생산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 박천홍 기자